‘상생 아이콘’ 광주전남연구원, 결국 분리 수순 밟나

광주시·전남도, 분리반대 여론 속 다음 달 공청회 열어
연구원 노조, 반대 움직임…박재영 원장 “연구원 더 키워야”

‘상생의 아이콘’이었던 광주전남연구원이 사실상 분리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분리 여부에 대한 찬반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연구원이 있는 나주 등에서 분리반대 여론이 확산하고 있고, 연구원 내부에서도 노조를 중심으로 반대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박재영 광주전남연구원장도 23일 연구원 재분리 움직임과 관련해 “통합이나 분리 여부를 떠나 (광주와 전남)연구원을 더 크고 강하게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장은 퇴임을 하루 앞둔 이날 광주시청 기자실에서 차담회를 하고 “(광주연구원과 전남연구원을 현재처럼) 통합 운영하거나 분리하거나 각각 장단점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통합 상황에서는 연구원 규모가 커지고 상생 등 폭넓은 범위 연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사실상 통합 유지를 희망하는 목소리를 냈다.

박 원장은 다만 통합운영 과정에서 겪었던 시도간 관리·감독의 중복, 불일치 등 각종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현 통합운영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박 원장은 “통합시 여러 장점이 있긴 했지만, 운영상 어려운 점도 많다”면서 “광주시와 전남도가 2년씩 교대로 연구원을 지도 감독하는 과정에서 평가지표가 제각각이고, 심지어 원장에 대한 대우나 연봉도 달랐다”며 아쉬운 마음을 털어놨다.

한때 시·도 상생의 상징이었던 광주전남연구원이 민선 8기 들어 사실상 분리 절차에 돌입한 상황에서, 이날 박 원장의 연구원 규모 확대 제안으로 수면 아래 있던 찬반여론도 가열되는 분위기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르면 다음 달 중으로 연구원 분리 관련 공청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분리를 기정사실화 하는 분위기다.

광주전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연구원 분리를 위해 해산할 경우 시·도는 조례안 제출 전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당장 연구원이 있는 나주시와 연구원 내부에서 반발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최근 연구원 노동조합은 조합원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분리 반대(87.7%)를 결정했다.

일부에선 연구원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자치단체장이 바뀌면 반복되는 분리와 통합 절차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특히 통합과 분리 여부를 떠나 열악한 예산과 부족한 연구원 확보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광주전남연구원은 시·도 통합연구원임에도 박사는 37명, 출연금 70억원 규모로 충남연구원(47명·80억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한편 광주전남연구원은 1991년 전남발전연구원으로 출범했다가 1995년 광주시 출연을 통해 광주전남발전연구원으로 확대됐다. 2007년에는 광주와 전남발전연구원으로 분리됐다가 2015년 민선 6기 당시 광주전남 상생 1호 사업으로 다시 통합돼 현 체제를 갖췄다.

민선 8기 들어 산업구조, 생활환경 등이 다른 광주와 전남의 정책과제를 동시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다시 연구원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디자인을 만나다’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주제 ‘Meet Design’ 9월7일~11월7일

오는 9월 7일부터 11월 7일까지 열리는 제10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주제가 확정됐다.

광주디자인진흥원은 23일 올해 행사 주제 ‘디자인을 만나다(Meet Design)’를 발표했다. 전시주제는 팬데믹 후 첫 대면 행사, MZ와 알파세대와의 조우, 라이프스타일과 비즈니스의 결합, 세계 디자인과의 접속 등 디자인과 다양한 ‘만남’을 아우른다.

특히 올해는 광주디자인비엔날레가 20주년을 맞는 만큼 유명 국제 디자인상인 레드닷(Red Dot)이 참여한느 등 등 ‘국제화 원년’으로 삼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

나건(홍익대 국제디자인대학원 교수) 총감독이 기획을 맡은 이번 비엔날레의 전시관은 테크놀로지관과 라이프스타일관, 컬처관, 비즈니스관으로 구성된다.

테크놀로지관은 ‘디자인 주도의 따뜻하고 유연한 기술 구현’을 주제로 사물인터넷과 웨어러블 로봇, 미래형 모빌리티 등을 소개한다. 라이프스타일관에서는 레드닷을 수상한 글로벌 가구 기업들의 디자인을 선보이고, 컬처관에서는 삼성카드 등의 디자인 사례를 전시한다. 비즈니스관에서는 레고, 이솝, 리모와 등 글로벌 기업들의 디자인을 만난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 독거노인·장애인 가구에
응급 안전 안심 장비 추가 설치

광주시는 23일 “독거노인, 장애인 등 800가구에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장비를 새로 설치한다”고 밝혔다.

태블릿PC, 센서, 화재·활동량·출입문 감지기, 응급호출기 등 정보통신기술 장비를 설치해 응급 상황에서 신속하게 119에 연결하도록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주관 사업으로 광주에서는 지난해 말 기준 독거노인 4532가구, 장애인 297가구 등 4829가구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서비스를 통해 지난해 382건 응급상황을 119와 응급관리 요원이 신속히 파악할 수 있었다고 광주시는 전했다.

독거노인, 장애인 등 서비스 대상자나 그 보호자가 행정복지센터, 수행기관, 장애인 활동 지원 기관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류미수 광주시 복지건강국장은 “상시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장애인이 가정에서 발생하는 응급상황에 신속히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서 집중 신청 기간 등을 적극 안내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튀르키예 강진 피해자에 묵념 튀르키예 강진 피해 지역에서 생존자 수색·구조활동을 한 뒤 귀국한 대한민국 긴급구호대(KDRT) 1진 대원들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서희홀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지진 피해 희생자들을 기리는 묵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합장선거 본격 레이스…광주 경쟁률 2.7대 1

농·수·축협, 산림조합 등 18곳
전남 182곳…무투표당선 52곳

오는 3월 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본격 레이스에 돌입했다.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동시조합장선거 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전남에서는 142개 농협과 19개 수협, 21개 산림조합 등 182곳이 새로운 조합장을 선출한다. 〈관련기사 6면〉

모두 381명이 후보자 등록을 마쳐 평균 2.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경쟁률이 가장 높은 곳은 여수 거문도수협과 해남 산이농협으로 각각 후보자 5명씩 등록을 마쳤다.

전남에서는 전체 3분의 1에 달하는 52곳에서 무투표 당선자가 나왔다. 목포수협과 나주배원예농협, 나주산림조합, 완도금일수협 등이다.

광주에서는 16개 농·축협, 1개 수협, 1개 산림조합 등 모두 18개 조합이 선거를 치른다. 후보자등록 기간인 지난 21~22일 광주에서는 49명이 조합장 선거에 출사표를 내면서 평균 2.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동곡농협과 삼도농협은 각각 5명의 후보자가 등록해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민물장어양식수산업협동조합은 단 한 명의 후보만 등록하면서 무투표 당선자가 나왔다.

후보자 등록을 마친 이들은 이날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후보자들은 선거 전날인 오는 3월 7일까지 조합원들에게 자신을 알리게 된다.

선거운동은 후보자 본인만 할 수 있으며 선거공보와 선거벽보, 전자우편 등을 통하거나 전화로 가능하다. 하지만 전화는 직접통화나 문자로만 가능하고 화상통화나 동영상을 통한 통화는 제외된다. 이번에 뽑히게 될 조합장의 임기는 3월 20일 시작된다. 임기는 4년이다.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는 공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돼 지난 2015년 제1회, 지난 2018년에 2회 선거를 치렀다. 제3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는 다음 달 8일 진행되며,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투표할 수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안 팔리는 부동산 교환
하실분. 010-3605-5000

지분,땅,삽니다
맹지사절. 010-9582-7400

중
꼭! 받아야할 돈 회수
앙
※ 일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임대차 보증금·상속채권·채무 전문 무료 상담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법인회사 신용상태 파악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24시간 상담가능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860-4700
신 용

2023 고소득 추천 묘목
두릅 — 민두릅 참두릅 — 가시 없는 민두릅, 참두릅, 정강두릅은 봄부터 가을까지 수확
포도 — 루비로망 — 직경이 거봉포도 크기의 2배 (3cm, 무게20g, 당도 18브리스 이상)
감 — 감풍, 원추 — 신품종, 추위에 강하고 슈퍼단감
태추단감 — 배 맛이 나는 단감 중에 최고!
슈퍼대봉 — 대봉중에 맛이 뛰어나 식재를 많이 합니다.
엄나무 — 민엄나무 가시없는 엄나무 — 가시 없는 민엄나무 가시 있는 것보다 수확이 2배가 나오고, 효능이 같습니다.
호두 — 신품종 호두 — 주기결실, 열매가 크고 속이 꽉 차면서 가피가 얇아 손으로도 잘 부서집니다.
사과, 신품종 호두, 신품종 유실수 등 품종이 다양합니다.
※2023년 인기 품종으로 조기 품절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무는 "갑을농원"과 상담하세요!
묘목 식재 및 재배 관리까지 무료교육, 무료상담해 드립니다.
휴경지 노는땅 상담해드립니다.
갑을농원 묘목상담 : 010-3121-7676 문의전화 : 053-856-1144
경북 경산시 하양읍 화성로25 · 농협 312-3121-7676-91 (예금주:정준화)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 망 이수래(361002-XXXXXXX)
• 최후주소 : 전남 곡성군 삼기면 원등4길 11-4

피상속인 망 이수래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2023느단138호로 신청하여 2023년 2월 17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3년 2월 24일

• 상속인 : 1. 김재옥(370113-XXXXXXX)
2. 김철중(651003-XXXXXXX)
광주 북구 북문대로242번길 50, 203동 401호 (동림동, 푸른마을주공2단지아파트)
3. 김선화(671022-XXXXXXX)
4. 김정하(690501-XXXXXXX)
광주 북구 동운로 222, 202동 201호 (운암동, 블루시안2차아파트)
5. 김대중(721206-XXXXXXX)
• 청구인 1,3,5의 주소 : 전남 곡성군 삼기면 원등4길 11-4
• 신고기간 : 2023. 2. 24. ~ 2023. 5. 6.
• 채권신고장소 : 상속인 4. 김정하의 주소

자본감소 및 주권제출공고

1. 본 회사는 2023. 2. 23. 임시주주총회에서 자본금의 액 1,230,000,000원을 금 307,500,000원으로 감소하고, 그 방법으로 1주의 금액 10,000원의 발행주식의 총수 123,000주 중 주주 송경옥 소유 주식 41,820주, 주주 이준용 소유주식 27,060주, 주주 김형욱 소유 주식 23,370주에 대하여 유상 소각하여 발행주식 총수 123,000주를 30,750주로 감소하기로 결의 하였습니다.
2. 이 자본감소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게재일 다음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공고합니다.
3. 또한 본 회사의 주주들은 이 공고게재일로부터 1월 이내에 구 주권을 본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2월 24일
현아종합건설 주식회사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대교리 20, 2층
대표이사 이 돈

kwangju.co.kr
光州日報
광고신청 및 게재문의
062.227-9600